

“비즈니스 다각화·현지화로 印尼 금융 사각지대 없앨 것”

나는 뱅커다

① 변상모 신한은행 印尼 법인장

은행 거래하는 국민 40% 불과
2030년 경제활동인구 급증 전망
직원·대출 자산 등 모두 현지화
“은행 새로운 대안은 글로벌 진출”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발리섬바동(Badung)시에 발리지점 개설했다. 변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이 개점 기념 타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오늘도 뱅커들은 은행의 신(新)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자신의 알림을 앞당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점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영업채널 확보없인 은행도 쇠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뱅커들은 글로벌 영업 확대, 펀테크 개발, 비대면 채널 강화, 마케팅 다양화 등 새로운 물결에 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뱅커들을 만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국내 은행업은 저성장 기조와 수익성 악화로 글로벌에서 새로운 대안 시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은 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신한은행을 자바섬에 이룩해 보겠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신한은행 변상모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은행의 글로벌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은행이 진출해 있는 인도시네아는 국민 60%가 은행 거래가 없을 정도로 금융 사각지대가 많다. 신용 데이터도 미비해 은행업 진출에는 제한이 많다.

하지만 변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은 인구 보너스 효과(Demographic Bon

us Effect)에 힘입어 2030년까지 30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개척지로 풍부한 자원부국임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은행 내에서도 로컬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설상 첫 번째 법인이다. 신한은행은 2015년 11월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2016년 12월 센트럴내셔널은행(CNB)을 연달아 인수하며 현지서 출범했다. 또 신한은행 해외법인 중에서도 점포가 60개로서 가장

많고 여신심사, 채용, 예산 등 대부분의 전권이 현지에 부여된 독립된 은행이다.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의 현지 직원 730명 가운데 국내서 파견된 직원은 14명뿐이다. 대부분 현지인이다. 대출자산의 96%도 현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국영기업 등 현지 대출로 구성돼 있다.

변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국가 문장인 가루다에 있는 표어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이다. 300여 개의 민족이 1만7000여개 섬에 2억6500만명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은행의 NPL(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은 8% 수준으로 알려졌다.

변 법인장은 “이슬람 문화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꼭 상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약하다. 이는 현지서 신용사회 구축을 가로막고, 사금융이 활성화된 이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의 NPL 비율은 0.85%로 건전성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변 법인장은 “신한은행에서는 영업직

원이 위험도 관리하는데 이를 현지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면 상환될 때까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영업직원이 알아서 우량 대출고객을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선 개인금융 시장도 활성화돼 있지 않다. 또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가 넘는 동남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1인당 GDP는 4100달러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변 법인장은 만년 꿀찌였던 신한은행을 3년 연속 1등 영업점으로 만들었던 지난 2011년을 회고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

에서 좋은 고객과 오랜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해온 성과였다”며 “작은 성공경험이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을 이끌어가는데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디지털 기술을 현지에 이전해 금융소외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포용적 금융을 제공해 보고 싶다”며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전환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지난 14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세 번째)과 인도비료협동조합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인도시장 공략

인도비료협동조합 방문
협력·상생 방안 등 논의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이대훈 은행장이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을 방문해 범농협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 제시 및 상생방안을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도비료협동조합은 인도 전역에 지난해 말 기준 3만5214개의 회원조합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이다.

이 행장은 인도비료협동조합과 간담회 자리에서 “농협그룹 전체가 인도비료협동조합을 소중하고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사 간의 오랜 친구 같

은 관계가 더욱 발전해 결실을 맺고, 다각적인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행장은 같은 날 인도 재무부를 방문해 은행업 인가권을 가진 재무부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지점인기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 6월 뉴델리사무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2017년 5월 인도 노이다지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재무부의 2차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점 개설을 준비 중인 노이다지점은 한국 및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거점으로서 향후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안성미 기자

핀테크 기업이 대출 심사… ‘지정대리인’ 도입

금융위 2년간 혁신서비스 테스트

핀테크 기업 9곳 지정대리인 선정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외부 위탁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 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협력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게

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 제도가 활성화 되면 핀테크 기업은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대리인을 모집 공고하고, 접수된 심사대상 총 11 건 중 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핀테크 기업 ‘에이젠플로벌’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진행해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충분한 효과를 검증받은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제도여서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신한은행, 1억5천만 달러 신디케이션론 주선

UN 금융기관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신한은행은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에 대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신디케이션론을 주선해 한국계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신디케이션론 주선이며 기간은 3년, 금리는 리보(LIBOR)+1.35%이다.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 무역금융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UN) 산하 다국적 금융기관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 4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앙은행 및 국



지난 14일 영국 런던 소재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신디케이션론 서명식’에서 신한은행 허영택 부행장(왼쪽 두 번째)과 서승현 런던지점장(왼쪽 세 번째).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데니스 덴야(Denys Denya) 부행장(왼쪽 네 번째)이 서명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영업은행이 주 거래처로 무역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다.

신한은행은 FI(Financial Institutio

n)과 IB(Investment Banking) 사업 강화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확대, 조달 다변화를 진행했다.

/유재희 기자

저소득층,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증가

5년새 약 450만원 늘어

빚이 있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살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 5년 만에 가구당 약 45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핑에 실린 ‘저소득층 금융부채 현황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 중 비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2012년 3월 10.8%에서 2017년 3월 19.6%로 상승했다. 이는 금융부채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254만 원에서 705만원으로 늘었다. 거주주택 담보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40.3%에서 42.2% 올라갔지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신용대출 비중은 이 기간 29.7%(701만 원)에서 15.0%(469만원)로 반토막이 됐다. 소득 2·3·4분위는 금융부채 가운데 비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줄고 실거주 주택담보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